



# 바람직한 벤처 생태계 조성 필수 요소

벤처업계와 정부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짊어질 대안은 '역시 벤처뿐' 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지난해 이현재 부총리는 석유를 뿌려서라도 벤처산업을 회생시키겠다고 강력한 벤처 육성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나아가 지난 12월 23일, 정부는 벤처산업 회생을 위한 긴급처방으로 '벤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이 발표된 후 벤처인의 사기가 고조된 것은 물론 코스닥시장이 7개월만에 400선을 돌파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해 발표된 대책은 벤처 생태계 복원을 위한 여러 조건 중 선결과제인 자금 및 세제지원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벤처산업은 자금부분 이외에도 시장, 인력 등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어야 바람직한 모습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이번 호 VD이슈는 지난 호 '다시벤처다1-벤처 활성화 대책'에 이어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시벤처다2-바람직한 벤처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다룬다.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필수요소들을 정리하며 바람직한 대안을 강구해 본다.



## 바람직한 벤처생태계란 무엇일까?

벤처는 새로운 지식부가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하는 뉴패러다임의 중심에 있다. 벤처 생태계의 본질은 기존의 틀을 깨는 'Innovation'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실패없는 창조는 없다는 '이합집산, 다산다사'를 바탕으로, 많은 도전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의 창출은 기존 지식과 또 다른 지식의 변방에서 창조되므로 새로운 분야와의 이합집산된 네트워크의 창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벤처 생태계의 본질이다. 따라서 정부의 벤처관련 지원정책 역시 선택과 집중, 적자생존 등의 원칙을 적용하며 직접지원에서 생태계 조성으로 이동하고 있다.